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정동민*

1. 서론
2. 고구려 - 漢·공손씨·부여·魏·왜 전쟁사
3. 고구려 - 수·당 전쟁사
 - 가. 고구려 - 수·당 전쟁의 원인 연구
 - 나. 고구려 - 수·당 전쟁의 군사 관련 연구
4. 고구려의 군사와 방어 관련 연구
5. 결론

1. 서론

고대 동북아시아에서는 다수의 국가와 부족들이 출현하고 사라져 갔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에서 고구려는 700여년간 군림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히고 독자적인 천하관을 확립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 출현했던 국가 및 부족과 외교를 통해 평화롭게 교섭을 하기도 하였으나,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고 합의를 도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출할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에는 전쟁을 중재자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고구려는 주변 국가 및 부족과 끊임 없이 전쟁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만큼 고구려 전쟁사는 학계의 큰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학계는 고구려에 대해 중국 소수 민족이 세운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으로 간주하면서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인식은 고구려 전쟁사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중국 왕조와 고구려의 충돌에 대해서 중원 왕조와 지방 정권과의 충돌로 간주하고, 양국 간의 전쟁을 대외 전쟁이 아닌 대내적 통일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는 대부분 이러한 인식에서 전개되었다.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는 조공 - 책봉을 통한 신속 관계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전쟁 수행 과정이 부각될 경우 고구려의 군사적 역량이 드러남으로써, 중국 소수 민족이 세운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이라는 그들의 논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¹⁾ 그렇다면 반대로 전쟁사 연구를 통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고구려의 강성함을 부각시킨다면, 고구려가 중국 소수 민족이 세운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이라는 중국 학계의 기본적인 인식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고구려 전쟁사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전쟁사는 크게 전쟁의 원인, 배경, 성격, 전쟁 당사자 간의 관계 혹은 주변 집단들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는 연구와 전략, 전술, 무기 체계, 방어 체계 등 군사 관련 등을 파악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이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 이인철, 「중국학계의 고구려 사회경제 및 대외관계 분야 연구동향 분석」,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2004, 190쪽.

2) 임기환,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 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

동북공정이 종료된 2007년 이후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관련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면서, 고구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새로운 견해나 주목되는 견해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분석해 보면서, 고구려 전쟁사와 관련한 중국 학계의 전체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고구려 - 漢·공손씨·부여·魏·왜 전쟁사

고구려는 건국 후~수·당 전쟁 이전, 즉 7세기까지 다양한 국가 및 부족과 전쟁을 치루었다. 3세기대까지 고구려는 漢·魏·공손씨 등 중국 세력과 부여를 제외하면 말갈, 비류국, 행인국, 북옥저, 선비, 양맥, 개마국, 동옥저, 조나, 주나, 부산적, 숙신 등 주로 부족이나 작은 소국들과 전투를 벌였다. 그러다가 4세기~5세기 초반에는 주로 전연 및 후연과 전쟁을 치루었고,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에는 주로 백제 및 신라와 전쟁을 치루었다.

이렇게 7세기 이전까지 고구려는 다양한 집단들과 전쟁을 치루었지만, 이 당시 고구려의 전쟁을 다룬 중국 학계의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은데, 漢³⁾·공손씨⁴⁾·부여⁵⁾·魏⁶⁾·왜⁷⁾ 사이의 전쟁을 다룬 연구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중심으로, 『역사문화논총』8, 신구문화사, 2014, 10쪽.

- 3) 趙紅梅, 「玄菟郡經略高句麗」, 『東北史地』2007-5, 2007 ; 呂文秀, 「兩漢時期的高句麗-高漢爭遼的研究」, 『新課程學習(中)』2014-4, 2014.
- 4) 孫煒冉, 「遼東公孫氏征伐高句麗的原因分析」, 『通化師範學院學報』2015-6, 2015a.
- 5) 趙欣, 「夫餘與高句麗的關係探略」, 『東北史地』2009-6, 2009 ; 劉洪峰, 「高句麗與夫餘軍事關係探析」, 『白城師範學院學報』2013-4, 2013 ; 劉子敏, 「也談大武神王伐扶餘」, 『東北史地』2008-3, 2008.
- 6) 周向永, 「何處梁口」, 『東北史地』2007-3, 2007.
- 7) 孫煒冉, 「五世紀的麗倭戰爭述論」, 『東北史地』2014-3, 2014.

먼저 고구려와 漢 사이의 전쟁을 다룬 연구를 보면, 전쟁 자체 보다는 양국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趙紅梅는 고구려와 현도군과의 충돌 과정을 나열하면서, 현도군의 위치 및 고구려와 현도군과의 관계 등을 서술하였다. 그는 제2 현도군내 高句麗縣의 관할에서 고구려가 건국되었는데, 현도군의 통제력이 그리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현도군의 통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보았다. 제3 현도군시기에도 고구려가 현도군에 대해서 배반과 귀속을 거듭하였지만 결국은 현도군의 통제를 받았다고 하면서, 兩漢시기부터 위진남북조시기에 이르기까지 고구려가 계속해서 현도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⁸⁾

呂文秀 또한 고구려와 漢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삼국지』 위지동이전, 『후한서』,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투 상황을 기술하면서, 漢에 대한 고구려의 승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형에 의지하여 승리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하였다. 그리고 당시 고구려는 漢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여전히 漢의 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⁹⁾ 趙紅梅와 呂文秀 모두 고구려와 漢과의 충돌에서 고구려가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고 여전히 漢의 통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고구려에 대해 각각 “중국 동북지방의 민족 정권”, “兩漢 변경 지역의 封國이면서 소수 민족이 세운 정권”이라는 자신의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197년 고구려와 공손씨와의 충돌을 다룬 연구에서는 고구려와 공손씨가 충돌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孫煒冉은 『삼국지』에서 제기한 원인 가운데 “도망 온 胡 5백여호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기록에 주목하고, “도망 온 胡”에 대해서 중국사서에서 ‘胡’가 초원

8) 趙紅梅, 2007, 앞의 논문, 35~39쪽.

9) 呂文秀, 2014, 앞의 논문, 17쪽.

유목 민족을 가리키고, 공손씨로 대표되는 후한 왕조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존재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184~189년 張純·張舉의 반란에 참전했던 烏桓의 세 부락과 蹋頓”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¹⁰⁾ 그동안 공손씨의 고구려 공격 원인에 대해서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거하여 고구려 내부의 발기와 연우 간 왕위 다툼 개입과 연관시켰는데, 幽州의 정치 동향과 연관시켜 고구려의 공격 원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참신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烏桓의 세 부락과 蹋頓의 이동 경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구려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왕위 계승 초기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고구려가 공손씨와의 충돌 가능성을 무릅쓰고 굳이 그들을 받아들인 이유, 그리고 고구려가 그들을 받아들인지 거의 10여년이 지나서야 공격한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구려와 부여의 전쟁을 다룬 연구에서는 고구려와 부여의 전투 과정, 고구려와 부여의 군사 관계 및 고구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고구려의 부여 진군로 등이 소개되었다. 趙欣은 고구려와 부여 간의 전쟁에 대해서 사료 그대로 서술하였고,¹¹⁾ 劉洪峰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양국 간의 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양국간 군사 관계의 특징과 고구려가 우위를 점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그는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 - 부여가 고구려를 주도적으로 공격한 단계 - 고구려가 부여를 주도적으로 공격한 단계 - 부여가 고구려에 투항한 단계 등 4단계로 파악하였다. 고구려가 부여를 압도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부여의 노예제 사회가 빠르게 몰락하였다는 점, 부여에 의해 억압과 탈취를 당했던 여러 민족이 고구려를 지지하였다는 점, 부여가 평원이 많은

10) 孫煒冉, 2015a, 앞의 논문, 12~14쪽.

11) 趙欣, 2009, 앞의 논문, 75쪽. 그는 부여의 멸망을 두고 “중국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기술하면서 부여사가 중국에 귀속된 역사임을 표명하였다.

반면 고구려는 산이 많아서 전쟁에 유리하였다는 점, 부여인은 노략질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고구려인은 흉폭하고 노략질을 좋아했다는 점, 그리고 모용선비 침입에 따른 타격의 정도가 달랐다는 점 등을 들었다.¹²⁾ 趙欣과 劉洪峰의 연구는 고구려와 부여의 충돌에 대해서 사료 내용을 단순하게 시간 순으로 기술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劉洪峰이 제기한 고구려가 부여를 압도한 요인으로 기질의 차이 등으로 보는 것은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다.

劉子敏은 張福有·孫仁傑·遲勇 등이 「集安古道新發現兩通石碑」에서 언급하였던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과 관련한 견해를 비판하면서,¹³⁾ 21~22년 대무신왕의 부여 진군 노선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먼저 고구려군이 출발한 尉那巖城에 대해 중국 길림성 集安에 위치한 霸王朝山城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沸流水를 따라 부여국 남쪽으로 진군하였다”라는 기사에서 沸流水를 부이강, 부여국 남쪽을 지금의 遼源·磐石·樺甸 일대로 보았다. 그러면서 대무신왕이 진군한 노선에 대해서는 富爾江—統河—輝發河로 보았다.¹⁴⁾

正始 연간(240년~248년)에 일어난 고구려와 魏 간의 전쟁과 관련하여서는 양국 간의 전장이었던 ‘梁口’의 위치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周向永은 ‘梁口’에 대해서 太子河의 옛 명칭인 ‘梁水’와 관련시키면서 ‘梁口’의 ‘口’가 ‘河口’ 혹은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일 것이라는 기존의 통설을 부정하였는데, 『삼국사기』에서 ‘梁口’ 대신 ‘梁貊之谷’이라고 기록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는 ‘口’의 의미를 ‘육상의 중요한 길목’이라고 파악하면서 ‘梁口’ 즉 ‘梁貊之谷’을 ‘양맥이 사는 골짜기’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梁口’의 위치에 대해서는 小水貊의 거주 지점과 같고 고구려 중심구역에서 漢魏西安平·遼東郡城

12) 劉洪峰, 2013, 앞의 논문, 49~50쪽.

13) 張福有·孫仁傑·遲勇, 「集安古道新發現兩通石碑」, 『東北史地』2008-1, 2008.

14) 劉子敏, 2008, 앞의 논문, 29~31쪽.

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지금의 요령성 寬甸 부근 蒲石河 상류지역으로 비정하였다.¹⁵⁾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된 고구려와 왜의 충돌을 다룬 연구에서는 고구려와 왜의 충돌 과정과 전쟁에 따른 왜의 대외 정책 변화, 그리고 전쟁의 영향 등을 서술하고 있다. 孫煒冉은 왜의 대화 조정이 일본 본토를 통일하기 전인 신공황후때부터 한반도 진출을 시도하였고, 백제와의 연합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도중에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다고 서술하였다. 이 때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인 ‘왜’의 실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전투를 벌였고 신라를 위기에 몰았던 점 등을 들어 단순한 해적이 아닌 왜국 혹은 왜국을 수장으로 받아들인 정치세력에서 파견한 군대로 보았다. 그리고 연이어 고구려에 패배하면서 중국 왕조의 권위를 빌어 조선을 통제하는 이른바 ‘전통적인 대조선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 왕조에게 ‘都督 6개국’ 혹은 ‘7개국의 모든 軍事’ 칭호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⁶⁾

그는 기본적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사, 『일본서기』,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의 기사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신빙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다. 특히 『일본서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왜가 백제 및 신라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었다고 보면서 삼국과 왜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우리 학계와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개토대왕릉비〉 丁未年(407년) 기사의 고구려가 보기 5만명을 보내 격파하였던 대상에 대해서 한국 학계에서는 백제¹⁷⁾나 후연¹⁸⁾으로 보고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데, 그는 아무런 부연 설명

15) 周向永, 2007, 앞의 논문, 36~38쪽.

16) 孫煒冉, 2014, 앞의 논문, 30~33쪽.

17) 서영수, 「廣開土大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 『역사학보』119, 1988, 117쪽 ; 이도학,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전쟁 기사의 분석」, 『고구려연구』2, 1996, 761쪽 ; 여호규,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대중인식과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55, 2005, 29쪽.

없이 그 대상을 ‘왜’라고 단정하면서 논지를 전개해가고 있다. 그리고 왜가 삼국에 대해 ‘전통적인 대조선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하였는데,¹⁹⁾ ‘전통적인 대조선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고구려 - 수·당 전쟁사

7세기 고구려는 한반도에서 백제 및 신라와 전쟁을 치루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에서 수·당과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다. 이 가운데 고구려 - 수·당 전쟁은 7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뒤흔 들었던 대규모 전쟁이었던 만큼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고, 그만큼 고구려 전쟁사 관련 연구 성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고구려 - 수·당 전쟁과 관련하여, 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서술한 연구와 전쟁에 보이는 전략·전술·무기·방어 체계 등 군사와 관련한 연구로 나누어 연구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8) 천관우, 「廣開土王陵碑文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9, 546~555쪽 ; 임기환,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민’의 성격」, 『고구려연구』2, 1996, 773~774쪽 ; 이인철,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연구원, 2000, 196~198쪽 ; 문상중, 「광개토왕릉비 영락17년조 기사에 대한 재검토」, 『호서고고학』5, 2001, 233쪽.

19) 孫煒冉, 2014, 앞의 논문, 33쪽.

가. 고구려-수·당 전쟁의 원인 연구

고-수·당 전쟁의 원인 혹은 성격이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수·당 전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였다.²⁰⁾ 고구려-수·당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관련해서 크게 전쟁 당사자국 사이의 관계나 전쟁 당사자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움직임 속에서 찾는 견해, 그리고 전쟁 당사자국의 정치 동향이나 변화에서 찾는 견해가 있는데,²¹⁾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 주로 전자에서 찾고 있다.

먼저 고구려-수 전쟁의 촉발점이 되었던 598년 고구려의 요서 공격에 대해서 차후 수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교전지역을 좀 더 서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목적에서 일으켰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²²⁾ 즉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을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다가올 전쟁에 대한 고구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속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고구려가 많지 않은 군사를 동원하였고 사료에 구체적인 전투 과정과 사상자에 대한 기록 없이 단순히 승전하였다는 기록만 있다는 점을 들어 작은 충돌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²³⁾ 하지만 의도적으로 말갈족을 대거 전투에 참전시킨 점, 동원된 1만여 기가 그리 적지 않은 병력수

20) 董明勝, 「隋唐餘高句麗爭原因及影向探析」, 延邊大學 석사논문, 2008 ; 金金花, 「試析隋朝與高句麗關係由“和”到“戰”變化的原因」, 『黑龍江史志』2009-3, 2009 ; 劉軍, 「地緣政治視野下的隋唐征高句麗之戰」, 『黑龍江史志』2009-2, 2009 ; 劉琴麗, 「碑志所見唐初士人對唐與高句麗之間戰爭起因的認識」, 『東北史地』2012-1, 2012 ; 祝立業, 「略論唐麗戰爭與唐代東亞秩序構建」, 『社會科學戰線』2014-5, 2014 ; 董健, 「試析隋朝首次東征高句麗之原因」, 『通化師範學院學報』2015-11, 2015a ; 祝立業, 「唐麗戰爭期間麗倭交往述析」, 『北方文物』2015-1, 2015a ; 祝立業, 「唐麗戰爭期間的麗倭關係」, 『陝西學前師範學院學報』2015-2, 2015b ; 張豔, 「朝貢關係下隋唐對高句麗戰爭的原因分析」, 『周口師範學院學報』2015-6, 2015b.

21) 임기환, 2014, 앞의 논문, 8쪽.

22) 董明勝, 2008, 앞의 논문, 8쪽.

23) 董健, 2015a, 앞의 논문, 15쪽.

라는 점, 전투 이후에 수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는 점, 무엇보다 고구려의 왕인 영양왕이 직접 전투에 지휘하였다는 점 등에서 단순한 공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고구려 - 수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董健은 고구려 - 수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역사적 원인으로는 ‘故疆의 회복’, 현실적 원인으로는 풍부한 부를 바탕으로 한 영역 확장 시도,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수 문제의 경고 무시 등을 들었다.²⁴⁾ 金金花는 고구려가 중원왕조에 대해 조공 - 책봉 관계를 맺고 신속하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을 드러냄으로써 수문제가 불만을 품었고, 수가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 재건을 위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았다.²⁵⁾

張豔은 조공 관계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漢시기부터 북위가 중국 북방을 통일하기 전까지 중원 왕조와 고구려의 관계를 번속 관계로 설정하고 정치 예측이 강한 중앙과 지방 간의 조공 관계로 파악하였다. 그러다가 후한 이후 중국 대륙이 장기간 분열된 정세 속에서 요동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반대로 고구려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정치 예측성이 약한 조공 관계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바로 이때 중원 왕조가 고구려에 대해서 ‘독립된 변강 민족 국가’로 인정하였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써 태무제가 ‘고구려왕’으로 봉할 사례를 들었다. 그런데 수·당 통치자들이 예로부터 이어져오고 있던 大一統 사상과 고구려의 땅이 漢군현이었다는 인식을 토대로 고구려가 ‘독립된 변강 민족 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는 고구려왕에 대해 수문제가 ‘遼東郡公’, 당고조가 ‘遼東郡王’이라고 부른 사례를 들었다. 즉 수와 당은 고구려를 중국의 郡과 같은 지위로 보면서 북위때와 다른 조공관계

24) 董健, 2015a, 앞의 논문, 15쪽.

25) 金金花, 2009, 앞의 논문, 31~32쪽.

를 원했고, 반면 고구려는 수·당 시기에도 여전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치 연속성이 약한 중외 조공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보았던 것이다.²⁶⁾

祝立業은 고구려-당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옛 강역에 대한 회복, 전왕조의 복수, 후대의 우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과 더불어 종주국의 권위를 유지하고 ‘天可汗’의 지위를 견고히 하여 실질적인 동아시아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 속에서 전쟁이 발발하였다고 보았다.²⁷⁾ 劉軍은 수·당 통치자들이 고구려를 중원 왕조의 군현으로 보면서 고구려 정벌을 중원 왕조 통일의 일환으로 보았고, 고구려가 강력한 地緣 실체로 등장하면서 사전에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수·당 제국이 중심이 되는 조공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구려-수·당 전쟁이 발발하였다고 보았다.²⁸⁾

한편 劉琴麗는 당 초기 士인들의 묘지명과 『唐大詔令集』에 수록된 〈破高麗詔〉와 〈降高麗頒示天下詔〉 등에 드러난 전쟁 원인을 비교하고, 당 초기 士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당 전쟁에 대한 인식을 서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 초기 士인들은 전쟁의 원인으로 주로 당의 휴전 제안에 대한 고구려의 거부, 고구려의 신라 공격, 고구려의 미복속 등을 인식하였고, 일부는 고구려의 변경지역 군사시설 축조, 고구려의 내란 및 고구려인에 대한 동정심 등을 인식하였다고 한다. 반면 〈破高麗詔〉와 〈降高麗頒示天下詔〉 등에서는 고구려의 내란과 신하가 군주를 죽인 점, 당의 말을 듣지 않고 신라를 공격한 점, 신라의 구원, 고구려가 변경에 군사 시설을 완성한 점, 연개소문의 잔혹한 통치로 고구려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士인들이 전쟁 원인에 대해 〈破高麗詔〉와 〈降高麗頒示天下詔〉와 일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이

26) 張豔, 2015, 앞의 논문, 113쪽.

27) 祝立業, 2014, 앞의 논문, 117쪽.

28) 劉軍, 2009, 앞의 논문, 31~32쪽.

유는 士인들이 조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유를 선택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士인들의 묘지명에 드러난 전쟁의 원인인 ‘고구려의 미복속’은 士인들의 독립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은 중화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고구려가 당이 건립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따르기를 바라는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²⁹⁾ 그의 연구는 기존에 많이 활용되지 않았던 唐대 士인들의 묘지명과 『唐大詔令集』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위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대체로 고구려-수·당 전쟁의 원인으로 고토의 회복,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유일한 미복속국의 정벌을 통한 중원 왕조 통일의 완성, 고구려의 동북아시아의 패권 도모에 대한 반발, 정치 예측성이 강한 조공관계 회복, 중화 책봉 체제의 동요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신속 체제론 및 책봉 체제론 등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 구현에서 찾거나,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기존의 견해를 답습하고 반복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중국 학계에서도 수양제의 자만과 영토 팽창에 대한 욕심,³⁰⁾ 정통성 확보에 따른 절대 황제권의 실현³¹⁾ 등과 연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는 武川鎭 출신 군벌의 전쟁 욕심 및 권력 유지,³²⁾ 남조계 군대의 축출,³³⁾ 수양제에 아첨하는 집단들의 부추김³⁴⁾ 등을 제기하는 등 중국 내부의 정치적 동향에서 찾거나, 동북아시아와 남조까지 포괄하는 고구려 중심의 교역망 장악³⁵⁾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으

29) 劉琴麗, 2012, 앞의 논문, 15~19쪽.

30) 『수서』권4 本紀 제4 煬帝 논찬.

31) 楊秀祖, 「隋煬帝征高句麗的幾個問題」, 『通化師院學報』1996-1, 1996, 50쪽.

32) 宮崎市定, 『隋の煬帝』, 中央公論社, 1987.

33) 山崎宏, 「隋朝官僚性格」, 『東京教育大學教文學部紀要』6, 東京大學出版部, 1965.

34) 堀敏一,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中華の世界と諸民族』, 岩波書店, 1993.

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중국 학계를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성과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고구려-수·당 전쟁의 원인에 대해 주로 신속 체제론 및 책봉 체제론 등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 구현과 연결시킴으로써,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모습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학계의 동향을 보았을 때, 다음의 연구 성과들이 주목된다. 董健은 598년 수의 고구려 공격에 대해서 고구려의 도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도발의 중심에 당시 고구려의 집정자로 추정되는 淵子遊가 있었다고 보았다. 즉 淵子遊는 수와의 충돌을 통해 강력한 수에 대항하는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명망을 높이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높아진 고구려 귀족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³⁵⁾ 비록 그의 견해가 명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 아니고, 추론에 추론을 더하면서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고구려-수 전쟁 원인에 대해 고구려 내부 동향에서 찾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董明勝은 고구려-수·당 전쟁이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강구하고 수·당과 동등한 대국이 되려고 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두 독립된 정치 실체 사이에서 국가 이익이 충돌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구려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장기간 존재하였고 자신만의 정치·경제·토지·군사 제도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립적인 외교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통치 구역에 대한 임명·형벌 등에 대해 중원 왕조의 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다른 소수 민족이 세운 정권과는 다른 독립된 정치적 실체였

35) 김창석, 「고구려·수전쟁의 배경과 전개」, 『동북아역사논총』15, 2007, 133쪽.

36) 董健, 2015a, 앞의 논문, 14~15쪽.

다고 주장하였다. 즉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라는 중국 학계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전쟁의 성격도 ‘통일과 분열의 대립’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³⁷⁾ 그의 이러한 견해는 연변대학 석사 논문에서 제기한 것인데, 연변대학의 고구려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수 있다.

한편 고구려 - 당 전쟁의 성격과 관련하여, 祝立業은 당이 종주국의 권위를 유지하고 ‘天可汗’의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면서 고구려 - 당 전쟁을 “동아시아 질서 구축의 실질적인 서막”으로 파악하였다.³⁸⁾ 그는 고구려 - 당 전쟁 기간 동안의 고구려와 왜와의 관계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그는 고구려가 ‘連橫之勢’를 실현하여 전략적으로 당과 맞서기 위하여 왜와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였고, 반면 왜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천하 질서 구현을 위해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고 보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서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릉비>의 신묘년 기사를 참고하면서, 왜가 한반도 남부를 경영하였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다. 그는 왜가 당과 전투를 벌인 이유에 대해서 한반도를 200여년 간 경영하면서 얻은 성과를 지키고 당이 구축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질서를 저지하면서 자신의 천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고, 백강 전투에 대해서는 당과 왜 간의 ‘천하 질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결로 보고 있는 것이다.³⁹⁾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광개토대왕릉비> 신묘년조에 대한 기존의 중국 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1920년대 劉節이 일본 관학의 영향을 받아 백제와 신라가 왜에 同附하였다고 본 바 있다.⁴⁰⁾ 하지만 1980~1990년대 연구를 보면 대체적으로

37)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7~8쪽.

38) 祝立業, 2014, 앞의 논문, 116쪽~120쪽.

39) 祝立業, 2015a, 앞의 논문, 60~63쪽; 2015b, 앞의 논문, 95~98쪽.

40) 劉節, 『好太王碑考釋』, 1928(서영수, 「신묘년기사의 변상과 원상」, 『고구려연구』2,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오는 ‘왜’에 대해서 ‘일본 열도에서 건너온 자들’이라고 보고, 신묘년조의 주어에 대해서는 ‘왜’로 보고 있지만, 왜가 한반도 남부를 다스렸다는 설은 인정하지 않았다.⁴¹⁾ 王健群은 〈광개토대왕릉비〉에 보이는 왜의 백제·신라 침략은 北九州 일대의 일부 약탈자들이 무리를 지어 해적처럼 한반도 남부를 침입한 것이고, “以爲臣民”하였다는 기록은 일시적으로 굴복시킨 것일 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배 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⁴²⁾ 劉永智 또한 왜가 한반도 남쪽을 경영하였다는 설은 신화적인 색채가 짙고, 문헌 기사와 비문 기사 사이에 시간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기사는 비문의 작자가 과장한 언사로, 불평등 무역 관계나 특정한 시기의 임시적 타협·굴복·종속으로 보았다.⁴³⁾ 즉 祝立業은 중국 학계에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임나일본부설을 받아들이면서 논지를 전개해가고 있는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은 한국 학계는 물론 일본 학계에서조차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그의 연구 성과를 보면 한국 학계나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참고하고 있지 않다. 한국 학계와 일본 학계의 이러한 동향을 알고도 자신의 견해로써 표출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고구려-수 전쟁이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후대의 중원 통치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고구려-수 전쟁 이후에 새롭게 일어난 중원 왕조의 통치자들이 고구려-수 전쟁을 거울삼아 주변 국가에 대해 경솔하게 출병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천년간 변경 지역이 교착됨으로써 변

1996, 396쪽에서 재인용).

41) 徐建新, 「中國學界에서의 高句麗好太王碑 碑文과 拓本 研究」, 『고구려연구』2, 1996, 97쪽.

42) 王健群, 「廣開土王碑文中 “倭”의 實體」, 『고구려연구』2, 1996, 447쪽.

43) 劉永智, 「好太王碑의 發見과 釋文研究」, 『고구려연구』2, 1996, 279쪽.

경 밖으로는 수많은 신흥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고 보았다.⁴⁴⁾

나. 고구려 - 수 · 당 전쟁의 군사 관련 연구

전쟁사를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주제는 전략 · 전술 · 무기 체계 · 방어 체계 등 군사와 관련한 주제일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 - 수 · 당 전쟁과 관련해서 이러한 주제를 다룬 연구 성과는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주제로써 연구 방향을 넓혀 가고 있는데, 고구려 - 수 · 당 전쟁의 전개 과정과 전략 · 전술을 통한 고구려의 승리 요인 및 수 · 당의 패배 요인,⁴⁵⁾ 수군과 당군의 병참 지원 모습,⁴⁶⁾ 당의 水軍 운용,⁴⁷⁾ 군대의 진군로,⁴⁸⁾ 전쟁과 관련된 지명 및 성에 대한 위치 비정,⁴⁹⁾ 전쟁을 이끌어간 인물 분석,⁵⁰⁾ 645년 고구려 - 당 전쟁 당시 당군이 끌고 간 고구려인의 수,⁵¹⁾ 고구려 - 당 전쟁 후 췌州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구려 무인 집단⁵²⁾ 등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
- 44) 呂蕾, 「隋煬帝征伐高句麗失敗原因及其影響探析」, 『蘭台世界』, 2014, 138쪽.
 45) 王春強, 「隋唐五代時期幽州地區戰爭與軍事研究」, 首都師範大學 석사논문, 2007 ;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 馬正兵, 「唐太宗三次東征的軍事失誤」, 『文史春秋』 2008-9, 2008 ; 天行健, 「隋唐爲何一定要征服高句麗」, 『工會博覽(下旬刊)』 2012-6, 2012 ; 拯救夢想, 「隋唐皇帝禦駕親征爲何屢屢失敗」, 『時代青年』 2013-9, 2013 ; 呂蕾, 2014, 앞의 논문 ; 董健, 「楊諒東征高句麗失敗原因探析」, 『東北史地』 2015-4, 2015b.
 46) 曹柳麗, 2013, 앞의 논문.
 47) 張曉東, 「唐太宗與高句麗之戰跨海驛略」, 『史林』 2011-4, 2011.
 48) 崔豐茹, 「貞觀十九年唐軍攻打高句麗建安城的進軍路線考」, 『東北史地』 2012-1, 2012.
 49) 馮永謙, 「武鳳邏新考(上)」, 『東北史地』 2012-1, 2012a ; 馮永謙, 「武鳳邏新考(下)」, 『東北史地』 2012-2, 2012b ; 張士尊 · 蘇衛國, 「高句麗“安市城”地點再探」, 『鞍山師範學院學報』 2013-03, 2013.
 50) 孫煒冉, 「乙支文德考」, 『通化師範學院學報』 2015-7, 2015b ; 劉炬, 「試論“安市城主”」, 『東北史地』 2011-5, 2011 ; 華揚, 「論李勣東征事跡考」, 『黑河學刊』 2012-11, 2012.
 51) 趙智濱, 「唐太宗親征之役高句麗人移民內地人數考」, 『通化師範學院學報』 2015-5, 2015.
 52) 張春海, 「試論唐代營州的高句麗武人集團」, 『江蘇社會科學』 2007-2, 2007.

고구려-수·당 전쟁의 전개 과정을 소개한 연구 성과를 보면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나열하는 등의 평면적이고 개설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한정적인 사료에서 소략한 기록만을 인용·참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수 전쟁에서 고구려의 승리 요인 혹은 수군의 패배 요인에 대해서 수군의 자만심,⁵³⁾ 수 내부의 혼란과 외부의 저항,⁵⁴⁾ 지형 및 기후 등의 불리로 인한 원활한 치중 운송의 실패⁵⁵⁾ 및 수군의 부적응,⁵⁶⁾ 수양제의 지나친 개입 등 지휘 체계의 문제,⁵⁷⁾ 대규모 병력 운용에 대한 미숙,⁵⁸⁾ 그리고 고구려의 뛰어난 전술⁵⁹⁾ 등이 제시되었다. 전체적인 동향을 본다면, 고구려가 승리한 요인에 대해서 고구려의 역량을 내세우기보다는 수군 내부의 모순이나 지형 및 기후라는 어쩔 수 없는 요소 때문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董健은 598년 수군의 고구려 공격 실패에 대해서 기후와 지리 등의 요소가 직접적인 실패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수군의 자만심으로 인한 정보 및 준비 부족, 수군 통수권자인 漢王 楊諒의 무능함, 將帥 사이의 불화와 명확하지 않은 직책의 상하 관계 등을 거론하였다.⁶⁰⁾ 중국 학계는 598년 수군의 고구려 공격에 대한 실패 요인으로 장마로 인한 군량 운반의 어려움과 전염병의 유행 등을 언급하면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변수인 ‘기후’를 들었다. 그러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판단하고 수행하는 행위이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기후’라고 하는 변수 또한 인간이 판단하여

53)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17쪽.

54) 呂蕾, 2014, 앞의 논문, 137쪽.

55)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17쪽 ; 曹柳麗, 2013, 앞의 논문, 34쪽 ; 呂蕾, 2014, 앞의 논문, 137쪽.

56) 呂蕾, 2014, 앞의 논문, 137쪽.

57)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17쪽 ; 拯救夢想, 2013, 앞의 논문, 61쪽.

58) 呂蕾, 2014, 앞의 논문, 138쪽.

59) 薑明勝, 2008, 앞의 논문, 17쪽.

60) 董健, 2015b, 앞의 논문, 53쪽.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하여 패배하였다는 인식은 옳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董健은 수군의 패배 요인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는 중국 사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 학계와 일부 한국 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598년 수군의 고구려 공격 당시 고구려군과 수군 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주장을 소개하였다. 그는 遼水가 고구려의 중요 방어선임을 감안하면 고구려와 수양국 간에 교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 역사가들이 수군에 대해 기후와 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군하였다고 일부러 감싸 줄 이유가 없다는 점, 『수서』 등 사료가 편찬된 시기에 598년 고구려 공격에 참전한 인물들이 일부 살아 있어 당시의 상황을 아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고 설사 실제 전투가 있었음을 감추기 위해 왜곡을 하였을지라도 당 역사가들이 즉시 바로잡았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공격에 참전했던 지휘관에 대한 처벌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투 없이 철군하였다는 기록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다.⁶¹⁾

고구려-당 전쟁에서 당의 패전 요인으로 정면으로 강공을 펼치면서 전투 시기를 잃어버린 점과 전략의 중심을 고구려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서부 변경에서 龜茲·翠微·玉華·營繕과 전투를 벌인 점⁶²⁾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당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당군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고 있다.

張國亮은 당군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당군의 탄력적인 전략 운용과 이에 대한 고구려군의 고지식적인 대응을 들었다. 당은 처음에는 당태종이 친정하였다가, 그 다음에는 유격전, 그 다음에는 총공격을 가하는 식의 유연한 전략을 보여준 반면에, 고구려는 당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리한 지형과 성에 의존하는 방어

61) 董健, 2015b, 앞의 논문, 53쪽.

62) 馬正兵, 2008, 앞의 논문, 61~63쪽.

체계만을 고집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제 멸망을 막지 못하면서 북쪽으로는 당, 남쪽으로는 신라에게 협공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도 멸망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⁶³⁾

張曉東은 당태종대의 水軍 운용 양상을 소개하면서, 당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강력한 水軍의 육성을 들었다. 즉 水軍의 육성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국가 가운데 항로가 중간에 위치하면서 허브 역할을 하였던 백제를 정벌하였고, 이를 통해 지정학적 우위를 가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고구려를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하였다는 것이다.⁶⁴⁾

曹柳麗는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에서 보이는 병참 지원 상황에 대해서 병참 지원 관리 부서, 병참 지원 준비 과정, 군비나 糧秣 조달방법, 糧秣의 저장, 무기의 공급·관리·종류, 의료 위생, 운송로 및 운송 방법 등으로 나누어 서술한 뒤, 두 원정에 보이는 병참 지원 상황을 비교·분석하고, 병참 지원이 전쟁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였다. 수양제는 병참 지원을 중시하지 않아 충분한 병참 지원을 하지 않았고, 특히 병참 지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을 홀대하면서 각종 농민 반란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였다고 보았다. 반면 당태종은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 실패를 교훈 삼아 양식 공급, 운수 공구의 개선, 민심 획득 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원활한 병참 지원을 이끌어냈고, 결국 이러한 경험이 당고종대에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구려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보았다.⁶⁵⁾

이 연구에서는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과 당태종의 고구려 원정에서 보이는 병참 지원 상황을 서술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보다는 수와

63) 張國亮, 「唐征高句麗之戰的戰略研究」, 吉林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5~29쪽.

64) 張曉東, 2011, 앞의 논문, 38~46쪽.

65) 曹柳麗, 2013, 앞의 논문, 4~41쪽.

당의 병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즉 수와 당의 병참 지원 제도와 수양제·당태종대의 고구려 원정 당시 병참 지원 모습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양제가 병참 지원에 대해서 그리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수양제는 이미 598년 수문제의 고구려 원정때 병참 지원의 실패로 인하여 철군한 상황을 목도한 바 있는데, 그 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였다. 즉 수양제는 군수 물자를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운하를 개발하였고, 군사들에게도 부족하지 않은 병참 지원을 하였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고구려-수·당 전쟁의 전개 과정과 전략·전술을 통한 고구려의 승리 요인 및 수·당의 패배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군사 관련 연구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崔豔茹는 645년 고구려-당 전쟁 당시 建安城을 공격하였던 營州都督 張儉의 진군 노선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는 張儉이 이끄는 당군이 營州(朝陽)에서 출발하여 義縣과 北鎮을 지났고, 遼澤의 수령을 피하기 위해 遼澤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남하하면서 胡家를 지나 繞陽河를 건넜으며, 동남쪽으로 꺾어 大荒을 거쳐 高升鎮을 지났고, 다시 남하하여 沙嶺鎮을 거쳐 盤錦市 西牛古城村에서 요수를 넘었다고 보았다. 遼水를 넘은 후에는 동쪽으로 진군하여 牛莊鎮에 이르렀고, 그 곳에서 천리장성을 돌파하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장성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大石橋市 旗口鎮 二道邊村·後老牆頭村·前老牆頭村·旗口·長屯村·高坎鎮·前高坎村·下土台村·周家崗子·孫家崗村·老邊村·老爺廟村·小平山村·小邊村·西大平山村을 거쳐, 前崗子村과 後崗子村 사이의 淤泥河 入海口에 이르렀고, 이후 淤泥河를 넘어 남진하여 蓋州 高麗城山城 서북 黃糧堆村 남쪽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⁶⁶⁾

66) 崔豔茹, 2012, 앞의 논문, 25~27쪽.

고구려 - 수 · 당 전쟁에서 전장으로 등장하였던 지명과 성에 대한 위치 비정 시도가 있었다. 고구려 - 수 전쟁에 등장하였던 ‘武羈羅’에 대해서 지금의 요령성 新民市 巨流河村에 위치하고 있는 巨流河山城으로 비정한 연구 성과가 있었고,⁶⁷⁾ 고구려 - 당 전쟁 때 등장하는 安市城에 대해서는 海城 英城子山城과 大石橋市 海龍川山城 등으로 비정하였던 기존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海城 英城子山城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⁶⁸⁾

한편 고구려 - 수 · 당 전쟁에 참전하면서 크게 활약하였던 인물들을 소개하는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는데, 중국측 인물로는 李勣, 그리고 고구려측 인물로 乙支文德과 安市城主에 대한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다.

華陽은 李勣의 고구려 - 당 전쟁 당시 활약상을 서술하였다. 그는 李勣이 치밀한 전략 · 전술을 가지고 있었고, 사병을 보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에 충성함으로써 결국에는 전쟁 승리를 이끌었다고 서술하였다.⁶⁹⁾ 이 연구는 李勣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였다기보다는 전기적인 내용을 통해 장군으로서 위대함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아래의 연구 성과들은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에 대하여 보다 치밀한 분석을 가하고 있다.

孫煒冉은 612년 고 - 수 전쟁 당시 살수대첩을 이끌었던 乙支文德에 대한 기록들을 토대로 그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그는 乙支文德을 제외하고 ‘乙支’가 붙는 고구려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遺於仲文書〉에서 보이는 그의 漢和 정도와 ‘乙支’라는 고구려화된 성씨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 성씨로 보았던 ‘乙支’와 고구려 관직 가운데 하나인 정6품 ‘乙奢’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612년 수양제가 于仲文에게 보낸 밀지에서 ‘高元和 文德’이

67) 馮永謙, 2012a, 앞의 논문, 8~14쪽 ; 2012b, 앞의 논문, 3~8쪽.

68) 張士尊·蘇衛國, 2013, 앞의 논문, 31~39쪽.

69) 華陽, 2012, 앞의 논문 61~62쪽.

함께 언급되었는데 高元이 성과 이름이 합쳐진 전칭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乙支’는 ‘乙奢’의 이체자로 관명, ‘文’은 성, ‘德’은 이름으로 보았다. 그리고 관직이 정6품 ‘乙奢’에 불과한 만큼, 고구려에서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고, 살수대첩도 그의 지휘 하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乙支文德이 영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원인에 대해서 『삼국사기』 찬자인 김부식이 처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당시 고려가 요의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외적의 침략을 막아낸 영웅의 형상을 만들어 고려인의 민족주의 정서를 이끌어 내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乙支文德이 수 대군을 격파한 영웅으로 변모되어 과대 선전되었는데, 이러한 乙支文德의 형상이 김부식의 저술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삼국사기』에 비중 있게 서술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⁷⁰⁾

劉炬는 645년 고구려 - 당 전쟁 때 安市城 전투를 이끌었던 安市城主의 신상, 업적,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서술하였다. 먼저 安市城主의 이름이 ‘楊萬春’이라고 전해지는 점에 대해서, ‘楊萬春’이라는 이름이 처음 기록된 明代의 『唐書衍義』가 소설류에 가깝고 『삼국사기』에 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그 이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속 및 관직과 관련하여 연개소문과의 갈등을 고려하면 연개소문이 소속되었던 ‘東部’로 보기는 힘들고, 安市城으로 추정되는 海城 英城子山城의 규모를 볼 때 處閭近支급으로 추정하면서 大使者 혹은 大兄에 속하는 중급 귀족이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安市城主의 승리에 대해서 안시성 자체가 당군이 빼앗기 힘든 성이고 나쁜 날씨까지 고려하면 원래부터 安市城主에게 유리한 전투였고, 당태종의 착오 및 토산이 무너지는 우연적 요소가 겹치면서 승리를 거둔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공로로 따지면 612년 고구려 - 수 전쟁 때 요동성 전투를 이끌었던

70) 孫煒冉, 2015b, 앞의 논문, 9~13쪽.

遼東城主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安市城主는 그 상대가 당태종이었다는 이유로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安市城主에 대해 과대평가된 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⁷¹⁾

한국 학계가 乙支文德과 安市城主에 대하여 각각 그들이 활약한 살수대첩과 안시성 전투와 연관시키면서 주로 민족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중원 왕조를 격파한 구국의 영웅으로 파악하는데 그쳤던 반면에, 乙支文德과 安市城主 개인에 초점을 맞춰 그들 본인의 모습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乙支文德과 安市城主에 대한 역사적 평가 부분에서 결국 그들이 과대평가되었다고 결론을 맺음으로써 그들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645년 고구려-당 전쟁 당시 당군에 의해 당 내지로 끌려간 고구려인의 수를 파악한 연구가 있었다. 趙智濱은 당으로 끌려간 고구려인과 관련하여 民戶, 그리고 전투 중에 스스로 투항한 병사·포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책부원구』에 삽입된 기록을 신빙하면서⁷²⁾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다. 먼저 民戶에 대해서는 기록 그대로 18만명이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 호당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중국을 통일하기 전 진이 ‘小家庭 제도’를 강행하고 分戶수를 추진했던 정황과 연관시켜, 고구려 ‘小家庭 제도’를 실행하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병사·포로의 경우 농업 사회에서의 인구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당태종이 10만명을 다 돌려보냈다는 〈班師詔〉의 기록은 믿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당의 포로 정책을 참고해봤을 때 자발적으로 투항한 高延壽와 高惠眞 군대 3만명만 고구려로 송환되었을 가능성이 크

71) 劉炬, 2011, 앞의 논문, 17~21쪽.

72) “克其玄菟·橫山·蓋牟·磨米·遼東·白巖·卑沙·麥穀·銀山·後黃等合一十餘城。凡獲戶六萬，口十有八萬。覆其新城·駐蹕·建安合三大陣·前後斬首四萬餘級，降其大將二人，裨將及官人酋帥子弟三千五百，兵士十萬人。”

고, 말갈 3,300명이 당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점을 감안하면 약 67,000명의 고구려 군사들이 당의 내지로 끌려갔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도중에 도망가고 병으로 죽은 사람을 고려하면 모두 24만 명 정도가 당 내지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을 토대로 『책부원구』 〈班師詔〉에 기록된 당군에 의해 끌려간 고구려 민호와 군사의 수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성에서 당군이 고구려 군사를 사로잡은 기록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군사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민호수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고구려 군사 10만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필산 전투의 殺俘 비율을 1 : 2로 파악하면서 당시 포로의 수를 4~5만명으로 파악하였는데,⁷³⁾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비율과 숫자를 돌출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 멸망 이후 營州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무인 집단들에 주목한 연구가 있었다. 張春海는 당 현종 시기에 부병이 붕괴되었을 때 현지와 현지 부근에서 병력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인들이 대거 平盧軍에 흡수되었고, 蕃兵蕃將 임명에서 소외되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군대 집단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다가 安祿山の 난이 발생하였을 때 平盧軍 내에서 安祿山을 따르고자 한 집단과 조정에 충성했던 집단이 쇠퇴한 틈을 타 세력 확장에 성공하였지만, 安祿山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병력을 잃었고, 淄靑지역으로 진입한 후에 侯希逸과 李正己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무인 집단이 분열되고 결국은 와해되었다고 보았다.⁷⁴⁾

73) 趙智濱, 2015, 앞의 논문, 8~12쪽.

74) 張春海, 2007, 앞의 논문, 227~232쪽.

4. 고구려의 군사와 방어 관련 연구

고구려의 군사 제도, 무기, 방어 체계 등 고구려 내부의 군사나 방어 문제 등을 다룬 연구 성과들도 소개되었다. 먼저 군사 제도와 관련하여 고구려 후기 군사 제도의 모습,⁷⁵⁾ 금위군,⁷⁶⁾ 상벌 제도⁷⁷⁾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李爽은 고구려 후기 중앙과 지방의 군사 제도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중앙 정권이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5部 소속의 군대를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였다고 보았는데, 五部裨薩이 5部の 군대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왕이 직접 파견한 軍主라고 보았다. 그리고 무관 관제 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大模達을 금위군의 수장으로 보았고, 금위군에 대해서는 국왕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사적인 명을 받들었던 군대로 보면서, 금위군의 출현 또한 고구려 중앙 군사권의 강화로 보았다. 반면 지방 성주는 자신의 구역에서 병력 이동, 장수 파견, 징병권 등의 군사 지휘권을 가지면서 군사 자치권이 훨씬 강화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고구려 초기부터 이어진 軍政 일체화가 후기까지 이어지면서 행정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⁷⁸⁾

華陽은 고구려 금위군에 대해 주목하면서 금위군의 편성 시기와 그 의미 등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금위군과 연씨 일가를 관련시켜 논지를 전개해가고 있다. 그는 6세기 전후에 淵子遊가 고구려의 내란을 끝내는 과정에서 금위군이 조직되었고, 이 금위군을 연씨 일가가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⁷⁹⁾

75) 李爽, 「高句麗後期軍事制度研究」, 『東北史地』 2013-5, 2013.

76) 華陽, 「高句麗禁衛軍研究」, 『社會科學戰線』 2014-1, 2014.

77) 李一, 「高句麗軍事賞罰制度探析」, 『東北史地』 2013-6, 2013.

78) 李爽, 2013, 앞의 논문, 37~39쪽.

79) 華陽, 2014, 앞의 논문, 120~124쪽.

앞에서 李爽은 금위군에 대해서 금위군 편성의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왕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사적 명을 받드는 군대’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華陽은 ‘연씨 일가가 편성하고 장악한 군대’라고 파악하고 있다. 만약에 華陽의 견해처럼 연씨 일가가 편성하고 장악한 군대라고 한다면, 왕과 연관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금위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금위군의 조직은 “중앙 정권의 5부 군대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강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연씨 일가를 ‘중앙 정권’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李一은 고구려의 상벌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였는데, 소수림왕의 율령 반포 때 상벌 제도가 제정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군사적 징벌 제도와 관련하여 모반 및 반역에 대해서 화형을 집행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가혹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왕권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전투에서 패배한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참형에 처하였으며, 적에게 항복하여 아군을 공격한 자는 그의 家屬들을 처벌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새롭게 점령한 지역의 민이나 포로는 노예 혹은 수모인으로 삼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군사 포상제도와 관련해서 공이 있는 자에게 식읍이나 관직 혹은 王姓을 하사하였고, 죽어서는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그 공을 치하하였다고 서술하였다.⁸⁰⁾

무기와 관련해서는 고구려 고분 벽화와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무기·무장을 토대로 연구를 전개해 가고 있다.⁸¹⁾ 陳爽은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무기·무장을 분류·분석하고, 벽화와 문헌을 참고 하면서, 고구려 병기에 대한 편년을 시도하였다. 그는 고구려의 병기 대부분 중원과 유사하고 일부 병기는 고구려적 특색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고구려 병기는 대부분 철제이고 일부

80) 李一, 2013, 앞의 논문, 36~39쪽.

81) 陳爽, 『高句麗兵器研究』,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張曉晶·張葛, 『高句麗軍用裝備設計研究』, 『內蒙古民族大學學報』, 2008-6, 2008.

청동제 병기가 출토되는데, 청동제 병기에 대해서는 고구려 초기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무기 가운데 중원에서 보이지 않은 鑿形 화살촉을 주목하였는데, 고구려의 고분과 주거지 등에서 주로 보이고 군사 요새 유적에서는 드물게 보인다는 점과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수렵하는 장면이나 가옥에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전투용이 아닌 사냥용으로 파악하였다.⁸²⁾

張曉晶·張葛은 고구려의 병기에 대해 고고학적 발굴과 고분 벽화 등을 바탕으로 공격형 병기, 마구, 방호 용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구려가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힘든 지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볍고 정교한 병기와 민첩한 말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는데, 적의 침공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함이 병기에 투영되면서 병기 설계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환경에 맞는 군사 장비를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⁸³⁾ 또한 고구려가 기본적으로 중원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에 맞는 군사 장비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보았는데, 중원과 비교될 수 있는 고구려 병기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구려의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는 주로 성곽과 연관시키고 있다.⁸⁴⁾ 張樹範은 고구려가 요동 지역과 瀋陽을 차지한 시기, 그리고 瀋陽 지역을 운영했던 방식 등을 소개하였다. 그는 고구려가 4세기 말까지는 新城과 遼陽·湯河 이동 일대만 차지하는 등 요동 지역 일부만 차지하였지만, 5세기 초에 瀋陽과 遼陽 등을 차지함으로써 요동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漢魏晉 이래

82) 陳爽, 2010, 앞의 논문, 25쪽.

83) 張曉晶·張葛, 2008, 앞의 논문, 111~113쪽.

84) 張樹範, 「試述高句麗對沈陽地區的爭奪與控制」, 『東北史地』, 2015-1, 2015; 王禹浪·王文軼, 「高句麗在遼東半島地區的防禦戰略」, 『大連大學學報』, 2012-4, 2012; 趙曉剛·王海, 「石台子山城防禦體系探究」, 『東北史地』, 2014-03, 2014.

의 현도군 옛 성을 그대로 이용하고 행정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모두 갖춘 산성을 축조하면서 瀋陽 지역을 관할하였다고 추정하였는데, 현도군의 옛 성으로는 瀋陽 上伯官屯古城, 새로 축조한 산성으로는 瀋陽 塔山山城과 石臺子山城을 지목하였다. 한편 그는 고구려가 북위에게 칭신하고 책봉호를 받으면서 遼河 이동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 장관이 되었고 동시에 동북지역의 일부 소수 민족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즉 고구려의 요동 관할은 중원 왕조가 해야 하는 지방 관리를 대신하는 것뿐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고구려가 중국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가 관할하던 瀋陽은 저조한 발전 단계에 있었다고 하는데,⁸⁵⁾ 어떠한 근거로써 그렇게 생각한 것인지 알 수 없다.

王禹浪·王文軼은 요동 반도에 대한 지리적 이점을 소개하고 요동 반도 지역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들의 중요성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략적인 위치 프리미엄이 뛰어나고 천연의 수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는 요동 반도를 고구려가 차지함으로써, 고구려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5~7세기 사이에 요동 반도에 성곽을 구축함으로써, 요동 반도가 중원 왕조와 고구려 도성 사이의 전략적인 방어 완충지대와 물자 비축지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6~7세기 고구려가 수·당 등 중원 왕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보았다.⁸⁶⁾

趙曉剛과 王海는 1997년~2006년 동안 꾸준히 발굴이 이루어진 瀋陽 石臺子山城의 성문과 방어시설 그리고 예보 체계 등을 설명하면서, 石臺子山城 및 고구려성 방어 체계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먼저

85) 張樹範, 2015, 앞의 논문, 30~33쪽.

86) 王禹浪·王文軼, 2012, 앞의 논문, 17~22쪽.

고구려 천리장성에 대해 대형 산성이 중심이 되고 중형 산성·소형 산성·평원성 등이 보조하며 일부 구간에 토벽을 구축하였던 방어 시설로 파악하고, 石臺子山城을 천리장성을 구성하는 중형 산성으로 파악하였는데, 石臺子山城을 서부 변경의 제1 방어선인 遼河에 이어 제2 방어선(천리장성)을 구축하고 있는 성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고구려의 서부 국경의 중진인 新城(무순 고이산성)을 지날 때 반드시 지나야 했던 門戶로 보면서, 橫山城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성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대성이 중심이 되고 중·소형 산성이 서로 호위하는 다종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종의 예보시설을 구축하여 성의 전략적 방어체제를 발전시켰으며, 각각의 성곽에도 방어 시설을 갖추면서 수비는 쉽고 적군이 공격하기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보았다.⁸⁷⁾

한편 고구려의 성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 구성원에 대한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는데, 薛海波는 645년 고구려-당 전쟁 중에 등장하는 ‘城中人’과 ‘城人’에 대해 당군과 싸운 주체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성주를 압박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일반 민이 아닌 ‘군사(軍戶)’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城人’으로 볼 수 있는 ‘大兄’ 검모잠의 예를 들며 “兄”系 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성 구성원을 ‘부족 무장의 집합체’로 보았다. 그리고 고구려 성곽을 보면 주로 군사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군사를 제외한 다른 계층과 관련된 공간이 드물다는 점을 들면서 ‘城人’이 군사들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⁸⁸⁾ 그는 기본적으로 고구려 초기의 부족적인 요소가 고구려 후기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요소들이 고구려 후기에 성의 자치권이 강화되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城人’을 군사 집단

87) 趙曉剛·王海, 2014, 앞의 논문, 26~29쪽.

88) 薛海波, 「高句麗後期“城人”與“城體制”略探」, 『通化師範學院學報』, 2008-9, 2008, 4~5쪽.

으로 한정해서 보고 있는데, 과연 사료 문맥 속에서 특정 계층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즉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초기의 부족한 요소가 고구려 후기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5. 결론

중국 학계는 고구려에 대해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이라는 인식하에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2007년 이후의 최근 고구려 전쟁사 관련 연구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데, 고구려 형성 단계부터 이를 적용시키고 있다. 즉 고구려와 漢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충돌에 대해서 고구려가 승리한 부분은 평가절하하고 漢에 비해 군사적으로 항상 열세에 놓여 있었다고 하면서, 고구려가 비록 신속과 반복을 거듭하였지만 현도군의 통제를 받으면서 신속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5세기 초반 고구려의 요동 지역 점령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북위에게 칭신하고 책봉호를 받으면서 요동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 장관이 되었다고 하면서 중원 왕조가 해야 하는 지방 관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 서술하였다. 漢代~남북조시기에 이르기까지 신속 체제론과 조공 책봉론에 입각해서 고구려가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고구려-수·당 전쟁 연구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학계가 제기하고 있는 고-수·당 전쟁의 원인을 살펴

보면 고토의 회복,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유일한 미복속국의 정벌을 통한 중원 왕조 통일의 완성, 고구려의 동북아시아 패권 도모에 대한 반발, 정치 예측성이 강한 조공 관계 회복, 중화 책봉 체제의 동요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번속 체제론 및 책봉 체제론 등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 구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중원 왕조 내부 동향에서 전쟁 원인을 찾는 등 다른 관점 속에서 찾는 견해가 있었으나, 2007년 이후의 연구 성과를 보면 번속 체제론 및 책봉 체제론 이외의 다른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번속 관계 및 조공-책봉 관계 측면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고구려가 중원 왕조의 지방 정권임을 주장하려는 동향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고구려 전쟁사 가운데 군사 관련 연구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가 중원 왕조와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주로 지형이나 기후 등의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요소나 중원 왕조 내부의 모순 혹은 전투 당시의 우연적인 요소 등을 제시하면서, 고구려의 군사적 역량에 대해서는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乙支文德와 安市城主 등 고구려 인물들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들의 뛰어난 활약과 역량을 평가절하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적 역량도 함께 끌어 내리고 있는 것이다. 즉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드러내지 않고 고구려가 건국하였을 때부터 멸망에 이르렀을 때까지 계속해서 중원 왕조보다 군사적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계속해서 중원 왕조의 통제를 받았던 지방 정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였듯이 동북공정이 마무리된 2007년 이후 중국 학계는 고구려와 중원 왕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 주로 번속 관계 및 조공-책봉 관계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등 기존보다

훨씬 좁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전쟁의 원인을 바라보아야만 보다 정확한 전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전쟁사 가운데 군사 관련 연구 주제로는 고구려와 중원 왕조 전쟁에서의 승패 요인과 전쟁을 이끌어간 인물 분석 이외에 고구려의 전쟁 수행 과정, 병참 지원 모습, 水軍 운용 양상, 군대의 진군로, 전쟁과 관련된 지명 및 성에 대한 위치 비정 등이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 후기 군사 제도, 금위군, 상별 제도 등 고구려의 군사 제도와 관련한 연구,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무기·무장을 분석하여 고구려 무기의 특징을 소개한 연구, 성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방어 체계에 대한 연구 등도 소개되었다. 고구려의 군사 관련 연구 성과가 그리 많이 소개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금위군 문제나 상별 제도 등 다양한 주제로서 연구 방향을 넓혀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쟁에 참전하였던 인물 본연의 모습을 보려는 시각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전쟁 수행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수서』, 『구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책부원구』, 『삼국사기』 등의 사료 내용을 시기순으로 인용하고 나열하는 식의 평면적이고 개설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벗어나 보다 입체적인 전쟁 수행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들 사료 이외에 새로운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당의 묘지명이나 『唐大詔令集』 등 기존에 잘 활용하지 않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한 연구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또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문헌 자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반면 중국 내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로 인하여 많은 성들이 고구려 성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그 유물 가운데 무기와 무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들이 축적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전쟁사 연구에 있어 고고학적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였듯이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로 인하여 중국 동북 지역의 많은 성들이 고구려 성으로 판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성 방어 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반면 고구려의 무기·무장에 대한 연구 성과는 여전히 적다. 그마저도 무기·무장을 형식 분류한 연구 성과가 대부분이고, 무기나 무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나 배경이 무엇인지 혹은 전투 및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면, 보다 생생한 전쟁 상황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부대 편성이나 무기 체계 그리고 방어 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는 비단 중국 학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학계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한편 고구려 후기 성 구성원에 대하여 ‘부족 무장의 집합체’로 보고 고구려 초기의 부족적인 요소가 고구려 후기까지 내려오고 있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한국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구려와 왜와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고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연구가 있었고,⁸⁹⁾ 그리고 왜의 군사적 역량이 백제나 신라보다 우세했다고 보는 연구도 있는데,⁹⁰⁾ 이러한 인식 또한 한국 학계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고구려와 왜와의 관계를 설명한 중국

89) 祝立業, 2014, 앞의 논문; 2015a, 앞의 논문; 2015b, 앞의 논문.

90) 孫煒冉, 2014, 앞의 논문.

학계의 연구 모두 삼국과 왜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 학계와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학계와 중국 학계의 활발한 학술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발한 학술 교류는 양 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 전쟁사의 연구 범위는 너무나 방대하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어느 특정 시기를 범주로 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소 내용이 방만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에는 특정 시기나 특정 주제를 범주로 삼아 보다 치밀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2017.1.13, 심사수정일: 2017.2.21, 게재확정일: 2017.2.22.]

주제어 : 고구려, 전쟁사, 동북공정, 중국학계, 고-수 전쟁, 고-당 전쟁

<ABSTRACT>

A Recent Chinese Academic Research on the War History of Goguryo

Jung, Dong-Min

This article tries to identify trend of research of Chinese academics related to the war history of Goguryo by introducing achievements of Chinese academics in the war history of Goguryo after 2007 when Northeast Project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was completed, reviewing its perception on Goguryo, and reviewing and analyzing new or noticeable opinions in Chinese academics.

The perception of Chinese academics on Goguryo, which is was a local government of China, that an ethnic minority established was shown intact in Goguryo war history related researches after 2007 when the project of Dongbuk-Gongjung was finished. Chinese academics addressed that Goguryo was controlled by Hyundo-gun because of military inferiority since it was first founded and thus relation of 'Shinsok (臣屬)' was maintained. While explaining Goguryo's occupation of Liaodong area in the early 5century as replacement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from Chinese dynasty by Goguryo as a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 who rendered liege service and homage to Bei-Wei and received an appointment title, it addresses that Goguryo was a local government of China from Han to the Period of North and South Dynasties according to 臣屬體制論 and 朝貢册封論.

Such perception continues in researches on war history between Goguryo and Sui and Tang Dynasties. They tried to find the cause of war from implementation of the Chinese world order such as Fan-shu(蕃屬) system theory and installation system theory and strongly addressed that Goguryo was a local government of central Chinese Dynasty. The same trend is shown in military related researches. They did not show military competencies of Goguryo but highlighted its military inferiority to Chinese Dynasty. Through this, they emphasized that Goguryo was a local

government controlled by Central Chinese Dynasty.

When reviewing military related researches in Goguryo war history, it is found that they tried to expand research directions with various themes. However, they could not escape from flat summary simply enumerating historical facts when they explained war performance process. To break this, it is needed to actively use archaeological excavation achievements in addition to new historical records. If we can combine existing literal records and archaeological materials organically, it will help us to understand unit organization, weapon system and defense system as well as battle performance processes more concretel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Korean academics and Chinese academics such as Imnailbonbu theory. To overcome such perception gap, active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n academics and Chinese academics are required.

Key words : Goguryo, War history, Northeast project, Go-Sui War, Go-Tang War